



소통과 신뢰! 조합원과 함께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04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1.23(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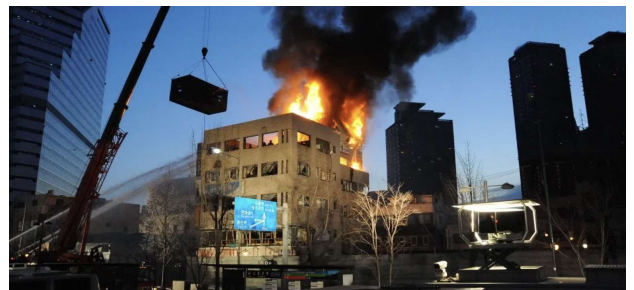
용산참사 17년, 책임자는 아직도 국회에 있다 용산참사 주범! 내란공범 김석기는 사퇴하라!



2026년 1월 21일(수) 오전 11시,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사무소 앞에서 “용산참사 17년, 책임자는 아직도 국회에 있다”를 내걸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주최로 김석기 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공공운수노조 경주시수도검침원분회, 그리고 용산참사 유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17년 전인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책 없는 잔인한 강제 철거에 맞서 세입자와 철거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 그러나 국가는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응답했다. 경찰은 특공대까지 동원해 철거민을 강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총 6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용산참사는 이처럼 대화 대신 폭력을 선택한 국가가 만들어 낸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사회적 참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짚으며, “사회적 참사는 잊히면 반복된다.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

해, 노동을 넘어 약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는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는 끝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진압 과정의 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오늘날에도 경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 대표는 “용산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대책 없는 강제 철거에 항의했지만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화 없는 특공대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석기 국회의원의 책임 인정과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마지막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김석기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 친일 발언 논란과 계엄·탄핵 표결 불참,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 등 일탈이 이어져 왔다”며 “최근 위법 판단까지 거론되는 만큼 이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시의 내란 동조인사 명예시민 추진이 주낙영 시장과 김석

기 의원의 논의 속에서 나왔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매년 책임을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사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가 사과하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하는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의 기반이 된다. 책임지지 않고 반성 없는 권력은 반복된다. 17년 전 용산이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12·3 비상계엄 역시 같은 구조 위에서 되풀이되어왔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난 오늘, 경주에서 다시 용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이 국회에 남아 있는 한, 국가폭력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경주지부는 유가족과 연대해 책임자 처벌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용산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책임을 묻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